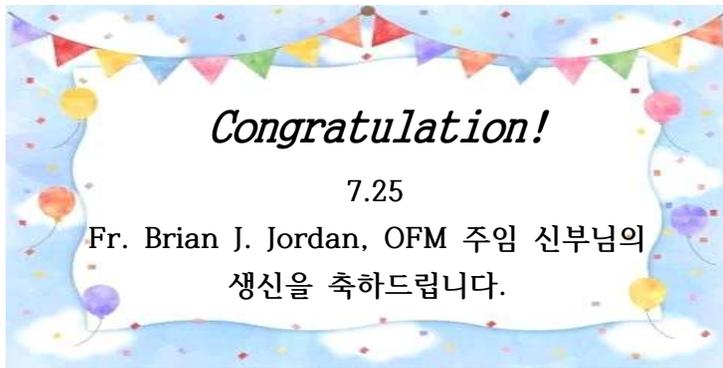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1만불 도네이션(익명)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미사 후, 저는 1만불 기부자를 확인하였고, 이에 공지합니다. 이는 교무금 외 목적기금(장학금) 중 일부이며, 기부자의 원의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고,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운용(運用)을 확인합니다. 하느님 백성을 위한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웅희 루카OFM

2025년 성탄 세례반 모집

2025년 성탄에 세례 받으실 예비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5년 8월 말까지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양식신청 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성령기도회 주관 Special 찬양 미사

일시: 7월22일(화) 오후6시

장소: 다미아노홀 *미사지향,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주례: 양창우 요셉 신부님(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미사반주: 청년 찬양팀

문의: 917. 929. 4242(성령기도회회장 민재인 데레사)

꾸리아 1일 성지순례

일시: 7월 26일(토) 8:00AM - 8:00PM

장소: National Centre for Padre Pio(필라델피아)

인원: 50여 명

문의: 347. 633. 3767(꾸리아 단장 윤숙자 루시아)

포르시운쿨라 천사들의 성마리아 축일 미사

일시: 8월 2일(토) 2:00PM

장소: 아랫성당(lower Church)

집전: 이웅희 루카OFM * 미사지향,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전대사 특전미사로, 미사 전 고해성사 있습니다.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일시: 8월 15일(금) 6:00PM

장소: 윗성당(upper Church)

집전: 이웅희 루카OFM * 미사지향,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찬양의 밤

일시: 8월 16일(토) 7:00PM

장소: 아랫성당(Lower Church)

* 청년 찬양팀에서 준비한 무대로써, 복음적 찬양의 빛깔 안에서 신앙감각을 일으킬 위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여름캠프

주제: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필리2, 2)

일시: 8월 22일(금) - 8월 24일(일) 2박 3일

장소: PORT MURRAY, NJ

참가비: \$250

신청/문의: 929. 660. 4456(청년회장 진현중 빈첸시오)

2025 레지오 마리에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주일 8am 단장: 347. 633. 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목요 6pm 단장: 347. 514. 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주일 11:10am 단장: 929. 208. 5147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er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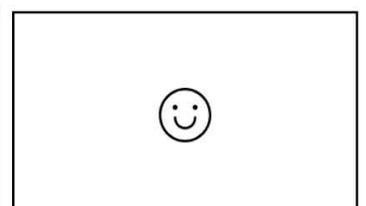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우리의 이름은 MZ가 아닙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서울대교구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기업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고졸 출신 신참 여직원들을 두고 직장 내 기성세대는 “너희가 세상을 몰라서그래.”라는 식의 폭력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그 와중에 여직원들의 편이 되어 주는 유일한 기성세대에 속한 봉헌철 부장(김종수 분)은 후배들이 회사에 저항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후배 직원 보람(박혜수 분)에게 편지로 자신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쉽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옛날을 안 살아 본 사람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지나간 시간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 누군가에겐 좋은 시절이었으면 좋겠어.”

앤 헬렌 피터스의 《요즘 애들》은 저자 본인을 포함한



도서 <요즘 애들>

미국의 대다수 밀레니얼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섬세하게 비춤으로써, 그들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특히 그들의 대입과 취업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린 시절부터의 사회적 상황을 되짚어봄으로써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처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합니다.

미국 사회의 태도가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봉부장의 시선을 따르길 요청합니다.

자신을 희생해 가며 얻게 된 대학 학위조차 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와중에,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실업률과 고용 인원이 860만 명 감소한 현실 앞에 대다수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금이나 근무 환경, 근무 시간과 같은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과로를 유능함으로 포장하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에 맞서 밀레니얼 세대가 적극적으로 저항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사회적 불안정을 개인의 불안정으로 엮지 않고, 기성세대들이 구축해 놓은 세대론에 잠식당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스템을 당연시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진단하는 미국 사회의 현실은 한국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게 다가옵니다.”

한국 청년들 역시 세대론에 파묻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이전 세대를 혐오하는 차원에 머물도록 사회 시스템이 그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안에서 《요즘 애들》은 사회 전체가 엠제트(MZ) 세대라 칭하는 ‘요즘 애들’을 마주함에 있어 우리 사회의 태도가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봉부장의 시선을 따르길 요청합니다.

“엠제트 세대가 마주한 절망을 단순히 그들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의 결과로 치부하지 않고 이전 세대들의 부덕함이 낳은 결과로 여길 수 있는 사회적 성찰로 이끌 수 있는 그 시선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신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마주하는 교회의 시선과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교회의 태도에도 《요즘 애들》이 요청하는 성찰과 쇄신의 과정이 절실히 보입니다.